# 주간 증시 브리핑

2025.12.29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## 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2025년 마지막 주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완만한 상승을 이어감. 코스피는 한주 만에 반등하며 다시 4,100선으로 올라섰음(4,130p, 주간 +109pt, +2.7%). KOSDAQ은 강보합에 그쳤음(920, 주간 +0.5%). 원달러는 12/24일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 속에 한주 만에 36원 급락(12/26일 1,440원)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견고한 경제지표(3Q +4.3%qoq 연율)와 Tech주들의 실적 기대 속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(S&P500 +1.4%, 나스닥 +1.2%). 日 증시도 엔캐리 청산 우려가 진정되면서 상승함(닛케이 +2.5%). 中 증시는 2026년 국채 발행 한도 확대 기대로 상승(상해 +1.9%, 항셍 +0.5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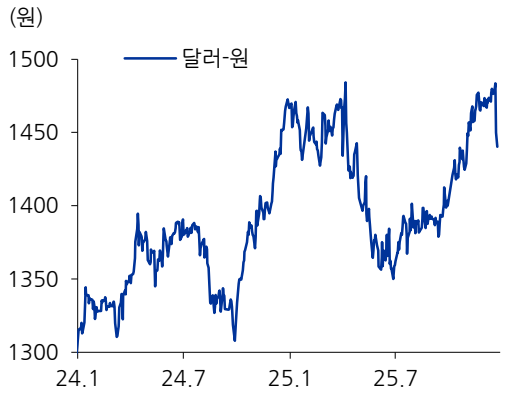
- **[시장전망]** 연말 대주주 양도세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에도 국내 증시는 견고했음. 내년 기업실적과 증시에 대한 기대가 유효함을 의미함. 1999년(+83%) 이후 연간 최대 상승률이 예상되는 국내 증시는 내년 기대를 바탕으로 완만한 상승 시도를 예상함.

- **[주요일정]**
  ① 韓 12월 수출입(1/1일)
  ② 美 12월 S&P글로벌 제조업 PMI(1/2일)
  ③ 美 FOMC 의사록(12/30일)
  ④ 中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(12/31일)
  ⑤ 주요국 증시 휴장(12/31-1/1일)

| 구분 | | 12/26 | 1W | 1M |
|---|---|---|---|---|
| KOSPI | ↑ | 4,130 | 2.7% | 4.3% |
| S&P500 | ↑ | 6,930 | 1.4% | 1.7% |
| DOW | ↑ | 48,711 | 1.2% | 2.7% |
| 닛케이225 | ↑ | 50,750 | 2.5% | 2.4% |
| 상해종합 | ↑ | 3,964 | 1.9% | 2.6% |
| 원/달러(원) | ↓ | 1,440 | -2.4% | -1.7% |
| 엔/달러(엔) | ↓ | 156 | -0.4% | 0.0% |
| 국고채3년(%) | ↓ | 2.958 | 3.010 | 2.90 |
| 국고채10년(%) | ↑ | 3.374 | 3.342 | 3.25 |
| 미국채10년(%) | ↓ | 4.13 | 4.15 | 4.00 |
| WTI(달러/배럴) | ↑ | 56.7 | 0.1% | -3.3% |
| 한5-yr CDS(bp) | ↑ | 22.1 | 0.0 | -0.9 |

### CHART of the week

**달러-원 환율 추이**




### 1 당국 개입, 연금 환헤지에 환율 급락(12/24일)

**단기 하락에도 구조적 상방 압력은 계속**

- 달러원 환율은 12/24일 전거래일 대비 -33.80원 급락. 일간 낙폭으로는 3년 여 만의 최대치.
- 이날 외환시장 개장과 함께 당국 관계자들이 일제히 강력한 구두개입에 나섰음. 26일에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재개를 공식 발표함.
- 그간 수출 기업 등에서 환율 상승 기대로 유보 중이었던 달러 자산이 많았던 만큼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- 그러나 구조적인 해외 직접/증권투자 압력을 해소할 수는 없음. 수급 안정화 대책에 내년 달러원 환율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나, 1,400원을 크게 하회하기 어려울 전망.

### 2 우에다 BOJ 총재 정상화 기조 재확인 (12/26일)

**신중한 인상 기조에 엔화 강세는 제한**

- 우에다 BOJ 총재는 26일 일본 경단련 연설에서 "2% 물가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" 고 평가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.
- 엔화는 12월 금리 인상 후에도 오히려 약세를 보이다 재무상의 구두 개입 후에야 진정됨. BOJ 인상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음.
- BOJ는 중립금리 수준을 최소 1%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, 인상 속도는 연 1~2회 수준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됨. 반면 日도 한국처럼 구조적인 해외 투자 압력은 심화되고 있음.
-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신중하게 진행되는 이상 달러-엔은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전망.

### 3 美 3Q GDP +4.3% 서프라이즈(12/23일)

**관세 여파에도 견고했던 경기**

- 美 3Q GDP 성장률은 +4.3%QoQ(연율) 성장해 시장예상치(+3.3%)를 큰 폭으로 상회함.
- 재고 증감의 마이너스 기여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, 이는 순수출 부문의 기여도 하락과 정확히 상쇄됨. 3Q GDP는 내수 호조의 결과임.
- 개인소비는 +3.5%로 2Q 대비 증가세가 확대. 내구재 소비가 약간 둔화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전분기 대비 개선. 민간최종판매도 +3.0% 증가함.
- 관세 부과, 고용 위축에도 내수 경기는 여전히 견고함. 4분기 셧다운 여파로 일시적인 둔화가 예상되나, 올해와 내년 모두 2%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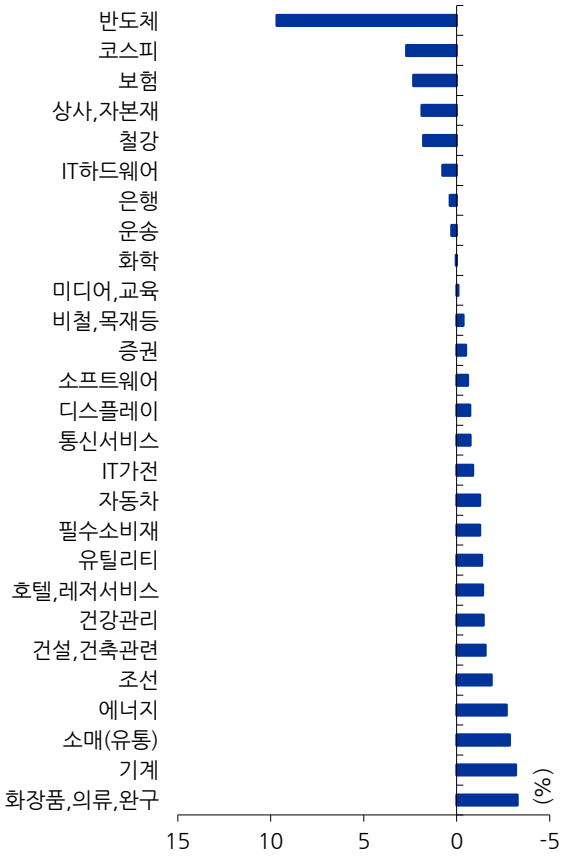
### 4 韓 채권시장 동향(12/22~26일)

**환율 안정에 단기물 중심 하락 전환**

- 국고채 3년물 금리 2.958%(-5.2bp), 10년물 금리 3.374%(+3.2bp) 마감.
- 주 초반 BOJ 금리 인상 여파와 환율 상승에 금리 상승 압력 받았음. 그러나 12/24일 외환당국 구두개입, 국민연금 환헤지에 환율 급락하자 단기물 중심 하락 전환
- 연말 한산한 장세 속 변동성은 크지 않았음. 장기물은 주 후반 외국인들의 순매도와 국채발행계획을 주시하면서 하방 제한

# 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## 주간 업종별 수익률(12/26 기준)




## 주요 경제지표 예상(12/29 ~ 1/2)

### 韓 12월 수출(1/1일) → 견고한 반도체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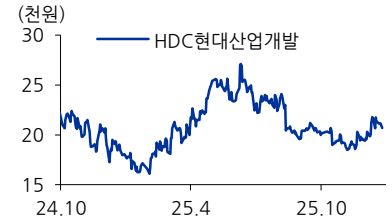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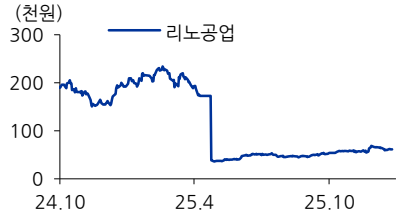
- 韓 12월 수출은 +8.5%yoy 증가해 11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- 최근 한국 수출은 반도체/컴퓨터 등 IT 부문을 제외하면 부진함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, 12월에도 같은 모습이 나타날 전망
- 다만 내년 주요국 재정 확대와 미국 금리 인하 속에 점차 비IT 부문의 제조업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
- 무엇보다 반도체 가격이 지난 두 달 간 +250% 가량 급등하는 등 상승세가 매우 가파름. 현 수준이면 내년 반도체 수출만 연간 40~50% 가량 증가할 전망. 한은이 전망한 2026년 연간 통관 수출 +3.7% 증가는 매우 보수적인 수치로 판단

### 美 12월 S&P 제조업 PMI(1/2일) → 횡보 중인 제조업 경기

- 美 12월 S&P글로벌 제조업 PMI는 51.8로 전월 52.2에서 소폭 하락할 전망
- 제조업 PMI는 올해 들어 50 초반에서 횡보 중. 8월 관세 협상 기대로 반등한 후로는 완만한 하락. 중소기업들에는 관세 인상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음.
- 아직 소비자들의 상품 수요는 좋지 않으며 기업들도 전가해야 할 비용 상승이 남아있음. 반도체 제외 제조업 부문의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함
- 하지만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국 감세안 효과에 내년 초 이후 제조업 경기는 하방을 통과할 전망.

| | 주요 경제지표 발표 | 매크로 / 시장 이벤트 |
|---|---|---|
| 12/29 (월) | | ▪ 韓 12월 결산 배당락일 |
| 12/30 (화) | ▪ 韓 11월 산업생산 (C: +1.8%yoy, P: -8.1%yoy) | ▪ 韓 2025년 증시 폐장일<br>▪ **美 FOMC 의사록** |
| 12/31 (수) | ▪ 中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(C: 49.7pt, P: 49.9pt)<br>▪ 韓 12월 소비자물가지수 (C: +2.3%yoy, P: +2.4%yoy)<br>▪ 韓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(C: +2.0%yoy, P: +2.0%yoy) | ▪ **韓, 獨, 日 휴장 (연말 휴장)** |
| 1/1 (목) | ▪ **韓 12월 수출** (C: +8.5%yoy, P: +8.4%yoy) | ▪ **韓, 美, 英, 獨, 日, 中 휴장 (신정)**<br>▪ 韓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|
| 1/2 (금) | ▪ **美 12월 S&P 제조업 PMI** (C: 51.8pt, P: 52.2pt) | ▪ **日 휴장 (신정 연휴)** |

# 추천 종목

| 섹터/산업 | 종목/코드 | 편입가 (원)<br>편입 날짜 | 수익률 | 최근 1년간 차트 | 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 | 투자 포인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건설/부동산 | HDC현대산업개발<br>(294870) | 21,800<br>(12월 12일) | -5.0% | 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4,256.2 / 4,226.3 / 4,540.7<br>영업이익 184.6 / 307.0 / 456.0<br>순이익 155.7 / 226.4 / 342.5<br>PER (배) 7.6 / 6.2 / 4.1 | ▪ 자체사업인 서울원 아이파크 매출 본격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 효과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<br>▪ 이익 성장 기대감, 그리고 제한적인 미분양 및 PF보증 리스크에 비해 저평가 구간<br>▪ 기존 주주환원정책(별도 당기순이익의 20% 이상 현금배당) 외에 2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(11/20) |
| 바이오/제약 | 한미약품<br>(128940) | 445,500<br>(12월 12일) | 1.1% |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1,495.5 / 1,522.7 / 1,631.8<br>영업이익 216.2 / 237.8 / 268.2<br>순이익 140.4 / 173.9 / 201.5<br>PER (배) 29.6 / 35.4 / 30.7 | ▪ 비만대사 관련 파이프라인 유망(에페글레나타이드 2026년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, HM15275 비만 2상, HM17321 비만 1상 진행 중)<br>▪ MSD에 기술이전한 MASH 치료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임상2상 성공 기대 |
| 의료기기 | 엘앤씨바이오<br>(290650) | 58,000<br>(11월 28일) | +7.9% |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72.1 / 86.5 / 118.5<br>영업이익 2.5 / 6.2 / 18.9<br>순이익 141.0 / (79.0) / 30.2<br>PER (배) 3.9 / - / 117.8 | ▪ 리투오 매출 연간 가이던스 상향(30억 → 50억)에 따른 탑라인 증가<br>▪ 리투오의 수익성이 높아 (opm 50%) 전사 영업이익률의 가파른 개선 (3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. 별도 opm 22%, 연결 opm 13%)<br>▪ 메가덤플러스 중국 판매 계약 연내에 마무리 될 예정. 내년부터 중국법인 매출 발생될 것으로 전망 |
| 반도체 부품 | 리노공업<br>(058470) | 68,300<br>(11월 28일) | -10.5% | 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278.2 / 364.8 / 430.4<br>영업이익 124.2 / 169.9 / 204.0<br>순이익 113.3 / 142.2 / 170.8<br>PER (배) 25.8 / 32.6 / 27.2 | ▪ ASIC 시장 성장 및 TPU 볼륨 확대로인한 고성능 IC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 기대감 유효<br>▪ 4분기는 대면적, 신규 모바일 및 AI 칩 관련 소켓 매출이 지속 증가하며 비수기 효과를 상쇄할 것<br>▪ 26년 2나노 등 선단 공정 비중 증가에 따라 집적도 향상 → ASP 증가 효과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 |
| 화장품 | 에이피알<br>(278470) | 219,500<br>(11월 14일) | +4.8% |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722.8 / 1,438.8 / 1,965.6<br>영업이익 122.7 / 344.7 / 483.9<br>순이익 107.6 / 280.2 / 390.2<br>PER (배) 17.6 / 31.3 / 22.4 | ▪ 미국 얼타뷰티 25년 하반기 전매장 입점 하였음. 분기별 재주문량 증가로 26년 매출 상승 견인할 전망<br>▪ 기존 현지 마케팅 진행되지 않고 성장했던 유럽, 독일 영국 등 주요지역 마케팅 진행하며 성장 본격화될 것<br>▪ 올해 11~12월 세일 행사 호실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상향 가능성 |